

방송 외주제작사들 “방송사 갑질 여전”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 발간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둘러싸고 제작자와 방송사 간 권리귀속,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한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29일 발간했다.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제작사) 171개사, 방송사업자(방송사) 33개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 활용에 대해 제작사는 99.4%가 서면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부문은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은 평균 89.2% 수준으로 계약 유형에 따라 서면계약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한 89.8%로 나타났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은 방송사 답변 기준 평균 98.5%, 제작사 답변 기준 평균 89.8% 수준으로 약 8.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 및 종편 PP와 거래한 제작사는 각각 100%, 96.4%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일반PP와 거래한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82.9%로 다소 낮게 확인됐다.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있었다. 저작재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74.1%·제작사 74.6%,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제작사 8.8%,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에는 방송사 25.9%·제작사 16.7%로 차이를 보

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해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이 공동 수행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與 가처분 신청 ‘굿바이 이재명’, 베스트셀러 등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이 담긴 책 ‘굿바이 이재명’이 각종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등극했다. 29일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굿바이 이재명’은 전날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도 주간 베스트 정치/사회 2위, 종합 11위에 올랐다. 인터파크 도서에



서는 당일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예스24에서는 일별 베스트 종합 2위를 기록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배우 김부선의 변호사로 유명한 판사 출신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변호사로 또는 한 사람의 고발인을 뛰어넘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의 대한민국 역사 앞에 서 있다”며 “부디, 우리 모두 용기를 내 현명한 선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굿바이 이재명’을 퍼낸 지우출판을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문화재청 “가상세계에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즐기세요”

‘제페토’ 안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홍보관’ 개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메타버스(Metaverse·가상 세계) 운영체제 ‘제페토’ 안에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현장 홍보가 어려워지면서 IT(정보통신) 기술과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왔다. 이번 ‘제페토’ 내 홍보관 개관도 이같은 시도의 하나로, 전세계 젊은이들이 가상공간을 즐기는 사실에 착안해 마련됐다. 제페토 내 ‘방문캠페인 홍보관’은 캠페인 전반에 대한 소개와 각종 행사 소식, 10개의 문화유산 방문길 정보를 제공하고 그 각각의 방문길로 넘어갈 수 있는 톨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10개의 방문길 중 ‘제주 설화와 자연의 길’이 먼저 홍보관과 함께 공개되고 나머지 9개 방문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뉴시스



Seongsan Ilchulbong, 산양산, 쇠소깍, 용머리해안 등 4개의 장소로 구성된 ‘제주 설화와 자연의 길’은 각 지역의 독특한 실감 이미지와 함께 제페토 내 맵에서 다양한 과제·관련 행사를 구현해 이용자들이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재미를 느끼도록 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메타버스 운영체제 내 ‘방문캠페인 홍보관’과 ‘제주 설화와 자연의 길’의 공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인이 가상세계에서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뉴시스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디자인 ‘태권도의 꽃’ 선정

태권도진흥재단, 최우수 후보작 대상 국민 선호도 조사·전문가 검토 거쳐 선정... 내년 9월까지 설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음환)은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후보작 3점을 대상으로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태권도의 꽃’을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했다. 선호도 조사는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태권도의 꽃’과 ‘꽃’과 ‘태권도의 시작..한반도..’ 등 3점에 대해 실시했고 6,846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국민 선호도 조사와 함께 한국미술협회 조형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독창성 및 창의성’, ‘구조’, ‘유지 관리성’,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했다. 국민 선호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 결과 ‘태권도의 꽃’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태권도의 꽃’ 작가 김기덕 씨는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 들어 설 상징조형물을 디자인했다는 자부심과 명예는 평생의 선물이 될 것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음환 이사장은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치는 등 공정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태권도원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설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의 꽃’을 디자인으로 내년 9월까지 태권도원 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후보작 3점을 대상으로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태권도의 꽃’을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 총 66억7000만원 규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22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예술인(단체)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4500만원을 증액, 총 66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목적을 기준으로 창작기반, 창작활동, 향유활동으로 사업유형과 예산 규모를 재정비해 총 10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지역특성화사업과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별도 추진, 이번 지원사업에는 총 8개 유형, 47억70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뉴시스

창작기반 사업은 ‘장애예술 연구지원’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2개 유형이며,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작활동 사업은 장애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예술창작 활동 지원,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미술행사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총 26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향유활동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특성화 축제 지원 3개 유형으로 총 19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개요 및 사업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